평생학습 참여실태 분석 보고

◇ 최근 인적자원정책의 주요한 의제인 **평생학습 참여 실태분석** 결과가 나옴에 따라 동 결과를 분석, 정책적 시사점을 보고 드림

* 평생학습 참여 실태와 문제점(한국노동연구원, 2005.7)

□ 검토 배경

o 지식기반경제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**지속적인 학습**이 필요하고 최근 **인적자원개발**에 대한 **관심과 투자**도 **증가**추세

- 다만, 평생학습이 지식기반경제의 만병통치약으로 제시되거나 **평생학습 기회는 많을수록 좋다**는 식의 **과잉투자** 우려도 존재

o 정확한 실태분석 결과를 토대로 **우리나라 평생학습 참여 현황**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

* **'04년** 통계청 사회통계조사(3만3천 표본가구의 15세이상 가구원 조사) 및 경제활동인구조사('04.6) 결과 분석

□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참여 실태

① 정규교육단계에서의 지나친 투자

o 최근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**81.3%**('04년)에 이르고 있고 대학졸업생 수도 **'80년에 비해 5배**나 증가

- 젊은 세대에 대한 교육투자가 집중됨에 따라 **세대간 교육수준의 현저한 차이**

* GNP 대비 공교육비(공공부담+민간부담) 비중은 8.2%로 사교육비를 제외하고 미국의 7.3%, OECD 평균 6.2%에 비해 월등히 높음(OECD, 2004)

* 25~34세의 고졸이상 학력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**95%**로 OECD 회원국 중 최고이며 55~64세 계층의 고졸이상 학력자 비중 **31%**의 3배를 넘고 있음

o 청소년기 집중된 교육투자는 과도한 입시경쟁·사교육비 부담과 노동시장 진입 후 **학습참여 저해**로 나타남

* 우리나라 성인의 교육 등록율은 30대가 1.7%, 40대가 0.4%로 OECD 평균 5.4%, 1.5%와 큰 차이

② 고용안정 및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노동시장 인적자원에의 낮은 투자와 **성인의 낮은 평생학습 참여율**

o ′04년 현재 성인(15세이상)의 1년동안 **평생학습 참여율은 21.6%**로 **평생학습 참여 희망율 58.7%**를 크게 하회

* 평생학습 범주 : 직장연수, 학원 수강, 교양강좌, 직업훈련, TV · Radio · 인터넷 강좌 · 기타 등

- 근로자 숙련과 관련된 직무관련(직장연수 및 직업훈련) **평생학습 참여율은 12.7%**

o **여성보다는 남성이**, 학력은 높을수록, 기업규모가 클수록, 종사상 지위가 안정될수록 **평생학습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**

		평생학습 참여율	직무관련 평생학습 참여율	평생학습 참여 희망률
전체		21.6	12.7	58.7
성	남	23.8	17.6	58.4
	여	19.5	8.2	58.9
학력	초졸 이하	5.0	2.6	19.8
	중졸	9.1	4.5	43.6
	고졸	18.7	10.1	66.6
	전문대졸	35.5	21.7	82.5
	대졸	44.9	28.0	81.5
	대학원졸	53.4	38.3	77.0
기업 규모 (취업자)	1-4	13.7	7.5	49.0
	5-9	17.9	10.7	37.5
	10-29	28.0	20.0	32.7
	30-99	38.5	29.6	27.8
	100-299	41.4	34.3	23.3
	300-	54.6	46.3	21.4
종사상 지위 (취업자)	상용	44.9	36.2	77.1
	임시	18.2	10.7	64.3
	일용	7.1	2.6	46.0
	고용주	18.3	10.4	62.7
	자영업자	14.8	9.2	46.3
	무급가족종사자	9.9	3.3	45.3

o 평생학습 참여율의 단순 국제비교는 어려우나 국내 사회통계조사와 유사한 **OECD의 국제성인문해력** 조사에 따르면

- **25~64세** 성인의 주요국가 평균 평생학습참여율은 **44.0%**로 한국 **23.4%**에 비해 월등하고 직무관련 평생학습참여율은 **14.1%**로 최하위

<주요국 평생학습 참여율 비교>

	캐나다	덴마크	핀란드	폴란드	네델란드	스위스	영국	미국	한국
참여율(%)	40.6	60.1	64.8	19	42.9	45.3	53.7	48.1	23.4

③ 외환위기 이후 증대하는 노동시장의 **불안정성과 불확실성**에 **대비하는 평생학습 참여가 부족**

o **취업경험자**가 한해 동안 실직을 경험하는 비중은 **23.9%**에 이르고 실직을 경험한 취업자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**14.5%**로 실직을 경험하지 않은 **취업자의 참여율 25.5%**를 크게 하회

- **상용직의 경우** : 노동시장 이행 경험은 **17.7%**이고 계속 **재직중인 근로자**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**42.3%**이나 **직장이동자**는 28%, 실직의 경우 28.9%, 자영업이동 시 17.6%로 감소

  * **노동시장 이행 : 직장이동, 실직, 자영업 이동 등**

- **임시일용의 경우** : **노동시장 이행 경험은 48.6%**로 매우 높으며 전체적인 평생학습 참여율도 **15.2%에 불과**

  * 다만 전체적인 평생학습 참여율이 낮은 관계로 노동시장 이행 유무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율 차이가 크지 않음

- **자영업자의 경우** : 업종전환하거나 실직하는 비율은 **35.4%**에 이르고 임금근로자로 이동은 **10.2%**, 평생학습 참여율도 **14.6%로 매우 낮음**

□ 정책적 시사점

o **근로생애별** 인적자원개발 **투자의 불균형 해소**(학교교육에 치중한 인적자원개발에서 노동시장 중심으로 移動) 및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직업훈련 정책의 혁신이 시급

- 인적자원개발 접근 기회가 제한되어 있거나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**중소기업 근로자, 비정규 근로자, 자영업자**들에 대한 인적투자 확대(양극화 해소) 필요

o **노동시장 위험(실직, 직장이동, 자영업으로 전환)**을 최소화하기 위한 **근로자의 적응력을 높이는 방향**으로 인적자원 정책방향 설계

o 실태분석에 그치지 않고 평생학습 참여에 따른 **노동시장 성과개선** 분석도 실시

⇒ 향후 출범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도 정규교육 보다는 노동시장에서 인적자원개발 투자 확대, **평생학습 참여 불평등 해소** 등에 역점을 두고 **정책추진 필요**